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1호 [루계 제26095호] 주체107(2018)년 8월 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으로 당을 옹위하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는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증산돌격운동, 여기에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이 깃들어있으며 당중앙과 사상과 뜻, 발걸음을 함께 하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려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은 조선의 정신이고 창조본때이다.

천만군민의 불같은 충정과 혁명적의지, 비상한 창조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응축되여있는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당이 구상하고 일단 결심하면 그것은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로, 실천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의 장구한 로정에서 당과 인민은 언제나 한마음한뜻, 한모습이였다. 당의 사상과 로선, 구상과 결심은 혁명발전의 요구를 집대성하고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백전백승의 표대로 되였으며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우리 인민은 당에서 새로운 작전을 펼칠 때마다 심장으로 화답하며 결사의 정신으로 받들었다. 불볕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것이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였고 고결한 충정의 세계였다.

당의 사상과 로선, 당의 령도적권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해올수 있었다. 새 조국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진 1970년대와 1980년대, 류례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비롯하여 부강조국건설의 년대마다에는 언제나 당의 구상과 결심, 당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온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나날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시대정신, 시대속도들이 창조창출되고 눈부신 기적과 세기적변혁이 이룩되였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가 가르쳐주는 철리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이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전투적기치이며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복철강행군으로 평안북도와 삼지연군,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며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개변하여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집아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우리 당의 권위,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가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해상철길을 훌륭히 완공한 고암-답촌철길건설자들처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뻐스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처럼 당의 구상과 결심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는 실천가가 진심로 당에 충실한 사람이다.

주체조선의 전진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당의 령도따라 광명한 미래에로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신심은 드높고 기세는 충천하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으로 당을 옹위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맥박치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을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관철자들의 집단적혁신운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불리하면 그만두어도 되는 사업, 오늘 하다 못하면 래일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하는데 혁명가의 삶의 보람이 있고 영예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고 승리이라는 신념을 뼈속깊이 조아박아야 한다. 당정책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철한 관점,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결사의 의지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딱 차넘쳐야 한다.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집행하여 우리 당이 구상한 모든것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여야 한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고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진감시키며 당중앙을 결사옹위해온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려 누구나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나라의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기본요구는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곳에서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기마련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은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억척같이 다진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이 있다. 자체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림으로써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관차이며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중핵을 이루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핵심력량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로써 당의 구상과 결심을 받들어나갈 불타는 각오를 가지고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떨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과학연구성과들과 선진과학기술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내각과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의 경제사업지도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구태의연한 일본새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혁신적인 안목으로 경제발전의 주객관적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당의 경제발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전반의 균형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고 모든 일을 모가 나게 해제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철저히 내각에 집중시키며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이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책임일군들은 자기들의 위치와 본분을 자각하고 대담한 작전과 박력있는 전투지휘로 경제활성화의 포성을 세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일이 잘되지 않는 원인을 외적요인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자신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찾고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온갖 사상적병집들을 불태워버려야 한다.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는 습벽을 붙이며 신들메를 바싹 조여매고 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실력이자 실적이다. 해당 부문, 해당 단위가 일떠서는가 아니면 주저앉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실력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 집체적지도기관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발기한 우리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이 이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직관선전, 예술선동, 방송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공격전의 기상, 증산투쟁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경제부문의 당조직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단계별목표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정책적지도를 짜고들며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계속 고조시켜 경제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교양하고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당중앙결사옹위에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무궁한 번영이 있다.

모두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철정광생산에서 혁신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8월 첫날 생산에서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최근 며칠동안에 전달 같은 시기에 비해 천여t의 철정광을 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대중을 증산돌격운동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불꽃튀는 전투장들로 나간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해설해주면서 모두가 위훈창조의 돌격투사가 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최대로 발동시키면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생산을 높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과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일군들과 광부들은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로천분광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쇠돌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형굴착기와 회전식착정기들을 매장량이 풍부한 채광구역에 집중배치한 조건에 맞게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지게 진행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로천분광산에서는 중심박토구역을 옳게 정하고 박토처리를 앞세우면서 철광석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과학기술에 생산장성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회전식착정기와 굴착기의 가동상태를 측정할수 있는 장치들을 제작도입하는 등 로천채굴장에 통합생산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으며 채광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많은 광의 쇠돌을 생산하고있다.

채광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운광사업소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실동대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수송이자 쇠돌생산이라고 하면서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선광장들에 철광석을 더 많이, 더 빨리 실어나르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갖추어놓고 대형화물자동차실동률을 대폭 높여나가고있다.

박토콘베아사업소에서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설비와 부분품들의 보수정비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형원추형파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앞선 기술혁신안들과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수천m구간의 벨트콘베아로선을 정비보강하여 박토처리에서 종전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선광계통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정광생산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는 자각을 안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이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개조하고 보수시간을 단축하여 설비가동률을 높여나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관리를 더욱 짜고들고 과학적인 생산방법들을 받아들여 선광실수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년간 철정광생산계획을 기어이 앞당겨 완수할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철산봉의 로동계급의 불굴의 헌신적인 투쟁에 떠받들려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윤금찬

전력생산성과 계속 확대

원산청년발전소에서

원산청년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발전소에서는 높이 세운 7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일군들은 전력증산투쟁으로 들끓는 현장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는 한편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물관리를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와 함께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다그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최근에만도 발전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발전설비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할수 있는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전력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이상 높이고있다.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전력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고 운전조작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면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일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력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3호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종전보다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4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7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도수로보수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언제와 수력구조물관리를 맡은 로동자들도 전력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기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으로 전력생산성과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백두삼천리벌에서 밀보리수확 한창

백두삼천리벌에서 밀보리수확이 한창이다.

대홍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밀보리수확을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군5호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들에서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일정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경제조직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군에서는 지난 7월말 농장들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밀보리종합수확기출동식을 진행하도록 한데 이어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른아침이면 남먼저 포전으로 달려나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 일군들의 모습은 농업근로자들을 더욱 분발시키고있다.

농장들에 꾸려진 자체의 수리기지들에서는 부속품을 생산하여 밀보리종합수확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으며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이동수리를 조직하여 수확전투를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밑에 농업근로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밀보리수확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홍암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안고 두몫, 세몫씩 일을 하면서 매일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삼덕농장에서 밀보리수확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뜨락또르와 밀보리종합수확기, 탈곡기들의 수리정비를 끝낸 농장에서는 밀보리수확과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고있다. 농사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깐진 일솜씨를 발휘하며 밀보리수확에서 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신덕, 신흥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도 영농공정을 짜고들면서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그리하여 군적인 밀보리수확실적은 날이 갈수록 계속 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화학비료를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비료생산전투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높이 세워진 일정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원료조건이 변화된 실정에 맞게 무연탄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고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있다.

원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무연탄건조로에 페가스를 리용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이전보다 건조시간을 훨씬 단축하면서도 많은 석탄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2합성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가스되돌이공정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압축기 대당 능력을 현저히 높이고있다.

2질소직장과 1합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기대조작과 운전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산소분리기의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성과가 확대될수록 생산지휘성원들은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고 교대생산조직과 지휘를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지령원들은 종합지령실에 현시되는 압력, 온도, 가스류량 등 기술지표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부하조절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원료장입으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에서 만부하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대중의 생산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보장사업을 따라세우는 한편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해나가고있다.

노소직장과 집안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맡겨진 비료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할 열의밑에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고 교대가 교대를 도우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화학기계분공장과 보수분사업소아래 여러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속품생산과 설비, 장치물수리보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면서 비료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를 승리의 해, 영광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 총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흥남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주체비료생산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당이 정한 돌격침로따라 질풍같이 내달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위훈창조의 불길을 불타는 단천전역

정 론

따르릉- 요란한 발파소리가 지심을 뒤흔들었다.

뒤이어 천길막장에서, 땅우에서 악속이나 한듯 일시에 터져오르는 만세소리, 석수에 젖고 돌가루가 묻은 병사들의 얼굴마다에 줄줄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 지세찬 격랑마냥 전역의 도처에서 급이치는 강렬한 격정과 환희.

하루에도 수백차례 진행되는 발파이다. 그로 하여 거대한 지진대를 련상시키는 단천전역이건만 지난 6월 중순의 그 류다른 발파소리는 무엇때문에 그렇듯 용사들의 피끓은 가슴속을 파고들며 드넓은 전역을 통째로 흔들었던가.

그것은 자기들이 맡은 기본물길굴관통을 알리는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근위병들의 승전보성이였다.

물길굴뚫기전투에서 돌파구를 통쾌하게 열어놓은 근위병들의 투쟁전과에 화답하여, 그들처럼 물길굴뚫기전투장마다에서 기적적인 총공격전을 벌려나가는 단천용사들의 우렁찬 돌격함성이 거창한 전역을 진감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단천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단천발전소건설은 공사량이 방대하므로 발전소건설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야 합니다.》

단천전역의 그 어디에나 가슴을 대보라. 그러면 암벽을 뚫고나가는 착암기소리, 발파소리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으로 끓어번지는 내 조국의 힘찬 맥동으로 느껴질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굴진속도로 힘차게 전진하는 물길굴들은 그대로 증산돌격운동의 전구마다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는 억센 괴물기마냥 소중하게 안겨올것이다.

땅밑에서도 땅우에서도 격전이다. 보라,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근위병들의 뒤를 따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돌진해나가는 단천전역의 억센 기상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절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절사의 각오안고 단천5호발전소언제 진설과 물길굴공사에서 짐탄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가는 조선인민군 백출국소속부대 장병들의 힘찬 발걸음앞에 험준한 산악도 고개를 숙이며 뒤로 비켜서는것만 같다.

한몸이 그대로 정대가 되고 발파심지가 되여서라도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려 절사전을 벌려가는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와 대흥지도국려단, 라선시려단 전투원들의 피와 땀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물길굴들은 그대로 빛나는 위훈을 후세에 전하는 목격자, 증견자, 기록자이다. 산중의 《건동기공장》, 《목제가공공장》들을 든든히 꾸려놓고 자력자강의 원동력으로 하루가 다르게 공격속도를 높여가는 자강도려단, 평양시려단 건설자들의 강렬한 투쟁열기 또한 칼벼랑도 단숨에 날아넘을듯 기세충천하다.

전투력이 강한 수십개의 려단들이 정정열풍을 맹렬하게 일으켜가는 단천전역 그 어디를 가봐도 진격의 함성을 우렁차게 터치며 용감히 나아가는 공격전의 커센 숨결을 호흡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결정을 의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공사이래 최고의 굴진속도를 창조, 이는 단천용사들의 힘찬 진군의 보폭이다.

수천척지하에서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단천의 억센 혜동, 침단의 종합체라고 하는 인공지구위성으로도 그 깊이와 폭을 헤아릴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 총구에서 발사된 총탄마냥 곧바로 나아가는 단천의 총공격기세는 최후승리의 멩마루에로 한계를 모르고 줄달음치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똑똑히 보여준다.

단천의 공격정신,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맞구멍낼수 있다는 절사의 각오와 의지의 총폭발이다. 시련의 역풍이 세차게 불어칠수록 오직 자기 힘만을 믿고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돌진하는 자력자강의 투쟁본때이다.

자력갱생의 보검을 더 높이 추켜들라. 이것은 난관을 맞받아 완강하게 돌진해가는 단천용사들의 불굴의 웨침이다.

북방의 험한 산악들을 배심든든히 타고앉아 증산돌격운동의 진격의 나팔소리를 들먹하게 울려가는 전역의 어디에든 카보시라. 그러면 어머니의 등에 업힌 철부지자식이 되지 말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미더운 자식구실을 해야 한다고 진정을 터놓는 건설자들의 정신세계에 머리가 숙어진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앞선 건설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굴함없이 전진하는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병사들의 신심넘친 이야기를 들어봐도, 자체의 힘으로 공무기지를 꾸려놓은 인민보안성려단의 전투원들을 만나봐도,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기술자료들을 얻기 위해 수백리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탐려갔다는 자강도려단 지휘관들의 일본새를 놓고보아도 단천용사들이야말로 자력갱생정신을 습벽화, 체질화한 훌륭하고 강의한 애국자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후더워진다.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를 전률시켰던 항일대전의 병기창들을 돌아보는것만 같고 전기가 끊어지면 손으로 선반의 피대를 돌리면서 전시생산을 보장했던 군자리로동계급의 불타는 눈빛을 마주하고 선것만 같다.

꿋꿋에 자리잡은 후방키지들은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가. 천연수림속에 억척스레 터전을 닦고 북방의 찬바람과 눈서리에도 끄떡없게 병실들과 온실들, 축산기지들, 편의봉사시설들을 멧들어지게 일떠세웠으니 단천전역은 말그대로 크나큰 자력갱생대학이다. 여기에서 배우고 성장한 자력갱생강자들의 앞길을 막을 힘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점령 못할 요새가 어디에 있으랴.

단천용사들이 잊지 못해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폭파준비를 하던중 불의의 정황에 의해 수많은 돌파편이 몸에 박힌 상태에서도 함께 쓰러졌던 두명의 병사들을 땅밑로 끼안고 불사조마냥 대피호까지 기여가 동지들을 구원하고 쓰러진 조선인민군 김광철소속부대 한주성동무,

생사기로의 한초한초, 뒤이어 터지는 발파로부터 병사들을 구원할수 있는 어유시간은 불과 2분, 치명상을 입은 몸으로 자기 혼자 대피호까지 가기에도 미쳐 모자라는 시간이다. 그러나 자기를 먼저 생각한것이 아니라 살붙이처럼 사랑하던 병사들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힘을 깡그리 바친 그 시간은 과연 짧았던가 길었던가.

력명적돌지애의 그 승고한 정신세계는 용사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되여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끊없이 불러일으키고있으니 그것이야말로 단천전역의 또 하나의 힘의 원천이 아니겠는가.

자력자강의 양양된 열기로 탈아오른 불굴의 땅, 뜨거운 동지애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는 단천전역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실로 크다.

마야흐로 길고긴 물길굴에 화화-격류가 굽이쳐흘러가는 단천발전소에서 생산될 번영의 동력도 귀중하다. 허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맞구멍낼수 있다는 탐대한 공격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한 열혈투사들의 대부대가 숲을 이루고있는것이야말로 몇십만kW의 발전능력을 얻는것과는 대비조차 하지 못할 더 크고 더 값진 내 조국의 진짜재부이다.

절사관철의 거대한 용광로-단천전역에서 자력갱생의 억센 신념과 의지를 벼리고 가다듬으며 부강번영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제끼는 수천수만의 강철의 전위대오를 가지고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제일 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당이 정해준 돌격침로따라, 당에서 바라는 최상의 높이를 향해 무섭게 용을 쓰며 완강하게 돌진해나가는 단천의 공격정신은 과연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공사량도 방대하고 부족한것도 많지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안겨주신 필승의 공격정신이 있는 한 하늘이 무너진대도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방의 험준한 산악들에 공격좌지를 든든히 차지하고 줄기차게 전진해가는 단천용사들의 불같은 진정이다.

물길굴총길이만 해도 수백리에 달하는 굴지의 수력발전소건설, 착공의 첫 발파소리를 세상이 들썩하게 울리였던 지난해 5월 세계는 놀라운 눈길을 보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 중중첩첩 가로놓였던 력사의 도전들을 놓고볼 때 단천발전소건설은 기존의 공식이나 보통의 태껸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것이였다.

누구를 믿고 무슨 힘으로?

용감한 공격정신, 자력갱생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굳게 믿으시고 단천발전소건설이라는 붉은 화살표를 힘있게 그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시련이 겹쌓일수록 자기 힘을 믿고 맞받아나가는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앞에는 산악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것이 바로 우리 원수님 천만심장마다에 억척의 기둥으로 심어주신 승리의 철학이다.

우리 다시금 되새겨본다.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해마다 현대적인 거리를 하나씩 척척 일떠세우는 신화적인 건설기적들, 세계를 압도하려는 만만한 야심으로 끓어번지는 과학과 교육전선의 눈부신 성과들도 우리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용감하고 완강한 공격정신 어기에서 시작되고 절실을 떴은것 아니겠는가.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언제나 공격전에 계시는 우리 원수님, 자력자강으로 모든것이 흥하는 시대, 천하제일력원을 일떠세우시려 끊임없는 사색과 실천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그 많고많은 멩길과 바다길, 하늘길들을 다 합치면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돌진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공격주로가 될것이다.

대자연을 마음대로 길들이는 단천의 공격정신, 우리 어이 그것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떠나 생각조차 할수 있으랴.

단천발전소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단천발전소건설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그토록 간곡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단천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위훈떨친 근위병들과 시대의 영웅들도 여기에 불러주신 그이의 따뜻한 손길에 떠받들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단천전역이다.

보이지 않는 땅밑에서 묵묵히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여 사랑의 선물들도 가슴가득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의 끓얼는 정의 세계.

애국의 열망으로 지원사업에 참가한 평범한 공민들의 소행도 크게 여기시고 사랑의 감사를 보내주시여 단천으로 탐려가는 소박한 마음들을 그토록 내세워주신 우리 원수님의 그 은정.

그이의 믿음은 그대로 위훈의 나래가 되고 그 사랑은 그대로 기적의 힘으로 화하였다.

《밤먹으러 가는 시간마저 아까와 석수가 비오듯 하는 막장에서 선채로 밤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나자신도 놀라울 그런 힘이 막 솟구칩니다.》

혁신자로 소문난 함경남도려단의 나어린 돌격대원이 리놓는 깨끗한 마음이다. 눈 해별이 그리운것이 갱이 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밝고 따사로운 빛과 열이 비쳐들고있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다.

숨막힐듯 한 열풍, 씨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평안북도, 함경도, 함경북도, 강원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와 시의 수십개 단위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또다시 신들메를 푸실새도 없이 삼천메기공장과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찾으시며 불면불휴의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오늘은 또 어디에 계실가 하는 불타는 그리움을 낮이나 밤이나 안고 사는 건설자들, 경애하는 원수님께 키를 드릴 한공의 그날을 한시라도 더 빨리 앞당기려 피와 땀을 다 바쳐가는 숭절한 모습들, 이런 충정의 인간들의 백옥같은 량심과 의리에 뿌리를 둔 단천의 공격정신이기에 그렇듯 뜨겁고 굳센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퍼질 평평한 미래가 싱큼성큼 다가오고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이 무르익어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우리의 밝은 래일, 전체 인민이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갈 눈부신 미래, 이 모든것은 조국번영의 세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사회주의만복의 금방석이다.

미래를 앞당겨오는 기적은 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행성에 나라가 많아 수백개, 나라마다 추구하는 길들은 여러 갈래여도 자기 힘을 믿는가, 남을 바라보는가 하는 바로 여기에서 부흥과 쇠퇴, 강성과 몰락이 갈라진다고 말할수 있다.

애국의 심장 불타는 천만군민이여,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오늘의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는 자력갱생정신을 체질화한 불굴의 투사들이다. 모두가 자력자강의 창조본때로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단천의 투쟁정신으로 억세게 살며 투쟁하자.

우리에게는 장장 수십년간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진리가 있다. 자력갱생,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승리의 대통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가게 하는 부강번영의 불변의 공식이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석수와 수시로 떨어지는 돌덩이들이 앞길을 카로막은 어느 한 갱, 갱사전을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피끓는 심장으로 한자두자 새긴 병사들의 맹세문.

《우리는 1211고지를 목숨바쳐 사수한 전화의 영웅들처럼 이 한몸 메루가 되고 활차가 되어서라도 바위마저 불에 타는 고지에서 전사의 신념이 담긴 명세문에 한자한자 이름을 새기고 란우가 비발치는 격전장에 서슴없이 한몸바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피끓는 모습그대로 자기의 심장을 다 바쳐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껴가는 단천의 용사들, 이런 불굴의 공격정신에 삶의 박동을 맞추어나갈 때 구루 못할 난관, 뚫지 못할 시련의 장벽이 어디에 또 있으랴.

설사 앞에 지뢰밭이 있다 해도 당정책관철을 위함이라면 주저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로 년로한 몸에도 천여리 먼길을 달려가 며칠동안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 채로 수만m의 소철레루를 해결해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가파로운 조가령을 수십차례 넘나드는 단천발전소건설 현장지휘부 책임일군의 비상한 각오와 일본새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 일군들부터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만장약할 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탐보와 침체라는 말자체를 잊어버리고 비약과 혁신만이 이룩된다는것이다.

일군들이여, 당정책의 온명을 두어째에 겉머진 일군이라면 문서장을 들고 말공부만 하면서 실제적이며 전격적인 조직사업태책을 세우지 못하는 그릇된 사업태도, 불이 나면 따라가면서 끄는 소방대식일본새와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명주의를 혼적없이 불살라버리고 절사관철의 승전보성을 더 높이 울려나가자.

가시적인 성과에만 메달리지 말고 자기 단위의 리익만이 아니라 국가적리익의 전지에서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진취적인 일본새를 발휘해나가자.

죽어도 당정책을 메고죽겠다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절실을 떴는 사업의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자.

단천전역의 용사들이여, 경제건설대진군의 최전방을 지켜선 전초병답게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모든 대상건설에서 최상의 질, 최고의 속도를 보장하여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신화의 창조자가 되자.

인민이여, 단천의 용사들처럼 승리의 신심드높이 기적에서 더 큰 기적에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서 기어이 승리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자.

광명한 미래,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만복은 불굴의 공격정신을 체질화한 위대한 우리 인민의것이다.

김 철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꽃피우시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조국땅 북부에서 단천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단천용사들이 장진강과 허천강, 가림천을 비롯한 강하천들과 산발들을 길들이며 물길굴과 기본언제들을 형성해가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단천전역에 나래치는 비약의 숨결, 이 벅찬 현실속에서 우리는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고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같은 애국의지와 빛나는 령도의 자욱자욱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안아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며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과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단천발전소건설,

이는 보통의 담력과 기질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거창한 창조대전이다.

수십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게 될 이 방대한 대건설전투는 과연 어떻게 시작된것인가.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을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수많은 발자취를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대규모의 단천발전소건설과 관련한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초엽 아지은 누구도 단천전역에서 전망이 좋은 수력발전능력을 조성할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그때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단천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강령적인 지침을 안겨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해방후 첫 시기부터 인민경제의 동력이며 생명선인 전력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9(1990)년 2월 단천발전소를 크게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 계기때마다 단천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설계로부터 발전능력조성, 물문이문제를 비롯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관건적인 대상인 단천발전소건설을 위해 온갖 심혈을 바치시였다.

언제인가 안변청년발전소 제2단계공사가 끝나면 건설력량을 단천발전소건설에 돌려야 한다고 하시며 단천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다른 계기에는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설계도 해놓지 못한것을 아시고 가슴아프게 지적하시며 일군들을 일깨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단천발전소건설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은 또 하나의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태어날수 있게 한 강령적인 지침이였고 승리의 리정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빛나게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걸사관철하기 위한 거창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대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단천발전소를 최단기간에 건설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어쩌 그뿐이랴.

지난해 4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단천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할데 대한 공동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고 공사에 앞서 투자가 많이 드는 단천발전소를 계단식으로 건설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손색이 없게 작성하는 문제도 명쾌하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들의 비범한 령도와 사랑의 손길이 있어 단천발전소건설의 뢰성은 장엄하게 울려퍼졌고 한해 남짓한 기간 조국땅 북부에는 거대한 수력구조물들이 웅건한 자태를 드러내는 화폭이 펼쳐졌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현장에 달려온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새로운 건설신화를 창조하며 인적드문 산발마다에 위훈창조의 서사시를 자랑스럽게 새겨가고있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단천발전소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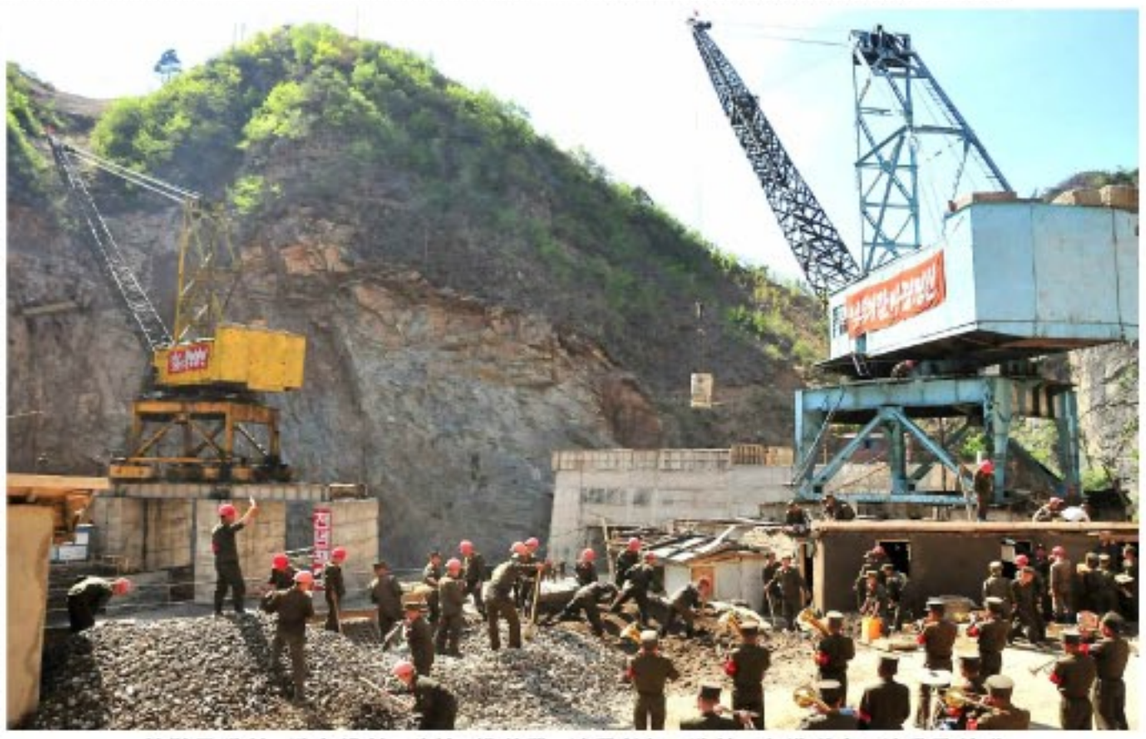
이 하나의 의지를 만장약한 단천용사들이 땅속에서는 물길굴을, 땅우에서는 거대한 언제들을 하루가 다르게 형성해나가고있다.

사람들이여,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보려면 여기 단천전역에 와보시라.

승리의 직선주로를 따라 질풍노도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 얼마나 억세고 그 힘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인가를 누구나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그렇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단천발전소는 머지않아 주체조선의 창조물로 훌륭히 솟아오를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혁명군대의 단숨에의 기상 세차게 나래치는 단천5호발전소 언제공사장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 서겠다

지금도 나에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단천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던 자애로운 영상이 삼삼히 떠오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단천전역이 얼마나 중요한 전구인가를 다시금 깊이 느끼였다.

오늘 단천전역은 대규모수력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의 전초선, 백열전의 기상이 나래치는 창조의 전구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사가 한창인 나날에는 첫물파일도 보내주시여 발전소건설자들을 위훈창조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공사를 힘있게 추진할수 있었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천험의 산발들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이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투쟁하는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

우리 일군들은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높이 받들고 그 어떤 험산준령이 막아선대도 완공의 시각을 눈앞에 그려보며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광적으로 벌려 온 단천전역에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겠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전인불발의 의지로 단천발전소를 최단기간에 완공하려는것은 공사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건설자들의 억척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심화시켜 단계별공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친넌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원칙에서 공사작전과 지휘를 더욱 박력있게 해나가겠다.

그리하여 당중앙이 정한 시간표대로 단천발전소건설을 기어이 제기일에 완공하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심상모

김 영 남 동 지 가

스위스련방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베 른

스 위 스 련 방 대 통 령

알 랭 베 르 쎄 각 하

나는 귀국에서 비행기추락사고로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8월 7일 평 양

주체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자

세 차 게 지 펴 올 리 고 있 는 단 천 발 전 소 건 설 장 에 서

기본물길굴도갱 성과적으로 관통

조선인민군 백춘국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백춘국소속부대 아래 박금룡소속부대 장병들이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천수백m의 기본물길굴도갱을 성과적으로 관통시켰다.

기본물길굴도갱을 관통시킨 결과 갱확장공사사업과를 확대하면서 부대가 맡은 단천5호발전소 신흥언제쌓기를 비롯한 중요대상공사를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력군, 돌격대의 위력을 계속 높이 떨쳐야 합니다.》

당의 부름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부대장병들은 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지난 시기같으면 3년이상 걸려야 할 천수백m구간의 기본물길굴도갱을 1년도 못되는 기간에 관통시키는 혁혁한 위훈을 떨치였다.

공사기간 부대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에 높은 건설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방대한 구간의 물길굴공사는 천연암반굴착과 때없이 쏟아지는 석수 등 어려운 지질조건을 극복하면서 전진해야 하는 어려운 전투과제였다. 공사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도 긴장하였다.

난관이 막아설수록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한 기상과 본때로 새로운 건설신화를 창조하려는 원승의 신념과 의지가 온 부대에 차넘쳤다.

부대정치부에서는 굴진전투장으로 오가는 통로들에 격동적인 글발과 속보들을 제시하고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경제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지휘관들은 한개 갱씩 맡고 현장에 들어가 전투실적을 높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정입구형성에 이어 굴진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투장에 흐르는 분분초초는 그대로 새 기적과 위훈창조를 위한 격동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졌다. 총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모든 정막장은 부대장병들의 정신력과 의지력을 검증하는 자연과의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였다.

당의 웅대한 발전소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부대지휘부와 모든 구분대들에서 공사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설비, 자재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결과 작업갱공사기간 백수십개의 정대와 천수백개의 정알, 풍기호스와 수십대의 착암기, 양수기들이 확보되여 공사에 리용되였다. 병기창마냥 무려진 수리기지들에서는 버럭처리설비와 압축기들이 제작 및 수리되여 굴진전투장들의 활력을 더해주었다.

시공단위 전투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맡은 굴진과제를 일별, 월별로 넘쳐 수행하기 위한 집중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부대아래 인길만소속구분대 장병들은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떠날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암질에 따르는 합리적인 천공구 명떼치방법과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공사에 적극 활용하여 련첩단위들에 비해 정군 2배의 전진속도를 창조하였다.

원철호소속구분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 지휘관, 전투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어려운 갱공사조건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극복하면서 전진속도를 부단히 높이였다.

공사기간 청천강-정남관개물길건설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부대장병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압축기를 비롯한 굴진설비들을 보장하고 앞선 경험을 도입하여 관통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부대지휘관, 병사들은 지금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완공의 날을 며 빨리 앞당길 일념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성력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창일수소속부대에서-

조가령을 길들이는 돌격투사들

함 경 남 도 려 단 에 서

단천발전소건설장에는 조가령의 험한 산정에서 불굴의 의지로 굴진성과를 확대해나가는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도 있다.

지난 5월부터 어려운 공사조건에서도 매일 3m의 굴진실적을 기록한 이곳 려단은 지금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네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의 근로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대상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염원한 애국의 인생관을 지니고 오늘의 벽찬 대건설전투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야 합니다.》

직업과 경력도 다른 이들이 물길굴공사를 위해 조가령의 험한 산정에 도착했을 때 주위는 온통 산발뿐이였다.

그로부터 두달만에 현장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수천m의 도로가 뻗어나갔고 굴진갱들은 수백m씩 전진하였다.

그 과정은 려단의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강의한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고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보람찬 과정이였다.

이들은 운반설비들이 도착하기 전에 맞들이와 수동권양기로 발대한 버럭을 처리하면서 작업경별로 수십m씩 전진했다.

53갱에서의 전투는 그야말로 결사전을 각오해야 하였다.

암질상태가 나쁘고 갱경사도 급하였다. 그러나 순간도 전진속도를 늦출수 없는 이들이였다.

발전소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치자.

모두가 이런 일념을 안고 공사에 달라붙었다.

초기에 굴진설비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였고 갱공사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악한 노력으로 기능수준을 높이고 굴진설비에 정통하면서 모두가 창조의 능수들로 자라났다.

임팡재, 최정원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돌격전의 기수가 되였다. 이들이 한개 갱씩 맡고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했다. 조성국동무를 비롯한 시공일군들은 대원들에게 앞선 착암 및 발파방법을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여기에 있다.

지난 5월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려단적인 굴진경기가 시작되였을 때였다.

그때 갱작업에 필수적인 착암기와 정대, 정머리와 풍기배관이 적지 않게 보강되여 하루에 최고 4m의 굴진실적이 기록되였다.

그에 맞게 버럭처리를 따라세워야 할 문제가 나섰지만 려단적인 력량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조건에서 여기에 보강할 로력이 없었다.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지휘관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할 때 박학룡, 박호성동무를 비롯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중대 전투원들이 스스로 결사대가 되였다. 이들에 의해 교대당 버럭처리량은 종전의 2.5배로 늘어났다.

인적드문 산정에서 위훈을 새겨가는 혁신자들이 어찌 그들뿐이랴.

다음교대가 리용할 동발보장을 위해 어카시간에 산판에 올라 동발확보전투를 벌리는 전투원들과 자기들도 1선참호에 나선 전투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착암기술을 습득하고 파감한 심천력을 발휘하고있는 흥남제약공장중대 소대장 전영성, 착암풍 주명철동무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해나선 이곳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지금 험준한 조가령을 길들이며 혁신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성력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창일수소속부대에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비결

청천강-평남관개물길건설 평양시려단에서

단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천강-정남관개물길건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작업갱공사에서 높은 속도를 창조하고있다.

려단은 지난해말에 새로운 물길굴공사장으로 이동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이 단위가 갱굴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기간은 길지 않다. 하지만 이곳 지휘관, 전투원들은 매달 굴진실적을 부쩍 높여 지난 5월까지 공사에 먼저 진입한 여러 단위들을 따라앞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돌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려단에서 기두고있는 성과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그것은 이곳 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전투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좋은 절심을 안아오고 있는것이다.

려단에서 올해전투를 시작할 때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압축기와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이 높지 못한것이 문제였다. 갱안에서 나오는 석수도 적지 않은 량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려단이 빠른 기일안에 여러말이나 앞서 공사에 진입한 단위들을 따라앞선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최용수정치부장과 안성일참모장을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공사의 가능성을 라산하기 전에 남들보다 열, 백걸음을 내달려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립장에서 전투조직을 짜고들었다.

일별공사목표가 새롭게 세워졌고 교대당 착암기와 풍차대수에 맞게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탐구도입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경쟁조직도 면밀히 짜고들었다.

지휘관들은 갱마다에 20㎥암축기를 한대씩 더 설치하는 사업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지휘관들과 리성일동무를 비롯한 압축기작업반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두개의 갱에 압축기를 더 설치하는 전투는 짧은 기간에 끝났다. 결과 그 어떤 조건에서도 굴진전투를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게 됨으로써 하루 굴진실적은 최고 6~6.5m로 높아졌다.

지휘관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갱들에 권양기까지 증설하여 실적을 더욱 높일 작전을 짜고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자기 단위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지휘관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지력갱생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실용성있게 운영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려단에서는 지금 선반, 볼반을 비롯한 부속품가공설비들을 갖춘 공무기지와 전동기, 변압기수리기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면을 크게 보고있다. 특히 변전소에는 다른 단위에서 보기 드문 변압기기름을 정제하는 설비까지 갖추어져있다.

이곳 지휘관들은 변전소운영을 맡은 해당 성원들의 창의창발성을 높여주고 중요자재화보에도 관심을 돌려 능률적인 설비들의 정비보수를 자체로 하도록 하고있다.

때로는 굴진속도가 떠젖세라 천수백m에 달하는 케블과 풀관을 비롯한 걸린 자재도 앞질러 해결하는 등 자기 단위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이곳 지휘관들의 투쟁기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하기에 려단에서는 카까운 기간에 기본물길굴도갱굴진은 물론 갱확장과 피복공사에서도 다른 단위들을 따라앞설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라선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라선시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심과 열정에 넘쳐 단천발전소건설에서 창조적위훈을 새겨가고있다.

려단은 발전소건설장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삼수호기슭의 불리한 공사구역에서 취수탐과 취수구, 수백m의 기본물길굴건설을 맡고있다.

공사조건이 어렵지만 려단의 라진지구대대는 지난해 건설장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수한 정카를 받았다. 련이어 이곳 지휘관, 전투원들은 지난 5월말까지 수백m가 훨씬 넘는 기본물길굴도갱을 굴진하는 눈부신 기록을 창조하였다.

이 성과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떨치려는 려단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 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지난 5월초 취수구지역의 기본물길굴공사가 벌어지던 어느날 려단앞에 뜻밖의 난관이 가로막았다. 며칠째 내린 소낙비로 하여 삼수호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갱이 침수될 정황이 조성된것이다.

뜻밖의 정황속에서 지휘관들의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한시바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취수구와 련결하게 될 물길굴까지도 침수될수 있었다. 그때 호안의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수 없다는것이 지휘관들의 의지였다.

회의에서는 언제 또 많은 비가 내려 물량이 늘어날지 모르는 조건에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선학봉려단장과 황철정치부장을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정주번에 방파제를 쌓고 호수기슭의 넓은 면적에 카물막이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태탈한 작전안을 세웠다. 련이어 려단적인 력량을 어기에 집중시키고 전투지휘를 펴기있게 하였다.

방파제형성을 위한 전투는 간교했다. 예상밖의 수위상승으로 이미 쌓았던 방파제는 물론 또다시 형성했던 방파제도 물에 잠겨버렸다.

모두가 발전소건설에서 중요대상인 우리 갱의 전망을 지켜보고있다.

지휘관의 이런 불같은 호소가 전투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10월 중순 지휘부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려단은 이미 공사를 벌리던 곳에서 긴급이동하여 삼수호기슭에서 취수구조물과 물길굴공사를 맡게 되였다. 그때 이들은 비록 굴진경험은 없었어도 명령한 돌격전으로 작업갱수를 더 늘이고 어렵운 번전소건설도 해제끼였다. 이들은 어디탈은 실히 겉려야 하는 압축기와 떼루, 동발과 배관을 비롯한 굴진설비, 자재운반작업도 짧은 기간에 기동적으로 해제끼였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소낙비로 감탕발이 되여버린 천장에서 질퍽질, 맞들이점을 힘차게 벌렸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한들이 그대로 섬새, 방패가 되려는 이런 결사관철투사들에 의해 불과 이틀만에 또다시 컨고한 방파제가 형성되고 카물막이뚝도 생겨났던것이다.

이들의 결사적인 투쟁기풍은 갱굴진전투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지금 려단은 취수구공사준비를 다그치는 동시에 2개의 작업갱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공사조건은 의연히 어려웠다. 두 갱중 한 갱에서 암질상태가 나빠 공사속도가 점점 더디여졌다. 그러나 횡포한 자연조건앞에서도 이들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단천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자.

이런 의지를 안고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막아나서는 난관을 박치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 지난 6월말까지 작업갱공사를 결속하였다.

7갱굴진을 맡은 라진지구대대 전투원들이 공격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전경선대대장과 박철호정치지도원을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기본물길굴의 접구간을 자기 단위가 도맡아 관통시킬 의지를 안고 발동발전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확보하고 그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명령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비상한 자각과 뜨거운 투쟁정신에 떠받들려 려단은 오늘도 전투력이 높은 단위, 단천전역의 관문을 지켜선 대오로 크게 소문내고있다.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단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양시려단에는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혈육들의 곁을 떨리 떠나 단천발전소건설장에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가족혁신자들이 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완공의 그날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위 훈 속 에 꽃 피 는 행 복

지난해 10월 어느날 지원물자를 안고 한 녀성이 단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왔다. 사동구역대대참모장 리정호동무의 안해 리금선동무였다.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안해가 리정호동무에게는 무척 고맙고 반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안해가 돌격대원이 되여 건설장에서 함께 일하겠다는것이 아닌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리정호동무를 바라보는 안해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어머니와도 토론이 있었어요. 집걱정은 아예 하지 말라더군요. 당신이 단천발전소건설에 참가했다고 우리 구역건물관리소에서도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는지… 이 땅에 사는 공민으로서 나도 조국이 부르는 여기 건설장에서 땀을 바치겠어요.》

이렇게 돌격대원이 된 리금선동무는 맡은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익숙되지 않은 일을 하다나니 처음에는 애를 먹었지만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그는 이내 무슨 일이든 막힘없이 척척 할수 있게 기능이 높아졌고 얼마후부터는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혁신자로 되였다.

리금선동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돌격대원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작업장을 알뜰하게 정돈해놓고 현장에 있는 공구들을 알뜰알뜰하게 손질해놓았으며 대원들의 작업창갑과 작업신발, 작업복들도 깨끗이 빨아 말려워놓았다.

그런 안해의 건강이 념려되여 리정호동무가 좀 쉬엄쉬엄 일하라고 이를 때면 리금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후날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단천발전소건설자였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일을 더 잘하자고.

쌍 기 둥

배광성동무는 풍부한 착암경험에 기초하여 매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서야 막장을 나섰다. 형인 배금성동무는 비록 착암작업을 늦게 배웠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짧은 기간에 한다하는 착암공으로 자라나 동생의 당당한 경쟁자가 되였다.

일단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수행에 들어가서는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들이였으나 서로 돕고 위하는 마음은 끔찍하였다.

새로운 굴진방법들을 한가지라도 더 도입하기 위해 항상 머리를 쳤고 각이한 암질에 따르는 천공, 발파방법들을 더욱 숙련시키기 위해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허심하게 배워주고 배웠다.

집단의 영예속에 개인의 영예도 빛난다는것이 그들의 소중한 지향이고 신정이였던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고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배금성, 배광성동무들.

그들의 가슴속에는 청년강국의 주인공이라는 긍지가 박차 있다. 그 긍지를 안고 그들은 오늘도 집단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굴진속도에 비낀 완강한 실천력

북 성 려 단 에 서

북성려단 지휘관, 전투원들의 완강한 실천력은 작업갱공사에 이어 기본물길굴도갱굴진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초기부터 공사방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어려운 조건에서도 실적을 높일 방도를 모색했다. 남들보다 2배, 3배의 실적을 올려야만 앞선 단위를 따라앞설수 있다는 자각이 모두의 가슴속에 자리잡았다.

그후 갱공사에 들어가 지심을 울리는 첫 발파를 진행했을 때 이들의 긍지는 높았고 배심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한치한치 전진해야 하는 갱굴진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높이 세운 전투목표에 비해 실적이 오르지 못할 때였다.

갱작업경험이 없는 조정을 남먼저 뚫고 기본물길굴도갱공사에서도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초기부터 공사방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어려운 조건에서도 실적을 높일 방도를 모색했다. 남들보다 2배, 3배의 실적을 올려야만 앞선 단위를 따라앞설수 있다는 자각이 모두의 가슴속에 자리잡았다.

그후 갱공사에 들어가 지심을 울리는 첫 발파를 진행했을 때 이들의 긍지는 높았고 배심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한치한치 전진해야 하는 갱굴진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높이 세운 전투목표에 비해 실적이 오르지 못할 때였다.

갱작업경험이 없는 조건에서 이들은 굴진실적이 높은 단위들을 찾아 먼길을 다녀오고 착암과 발파법을 익히기 위해 기능전습도 부단히 진행했다. 그 과정에 이들은 천공작업에서 련속적인 2차속빼기발파법을 도입하는데 달라붙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속빼기의 각도를 원만히 보장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한번 실패하면 열밤을 패면서도 이들은 끝끝내 앞선 천공작업방법을 습득하였다.

그후 새 천공방법이 도입된 결과 전진속도는 훨씬 높아졌다. 굴진중대 김동일, 2중대 한광북동무를 비롯한 굴진공들이 혁신의 기수가 되였다. 이들은 코대당 보통 3m, 최고 3.6m의 굴진속도를 기록해나갔다. 결과 려단은 작업갱굴진공사를 남먼저 절속하였다.

이렇게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확대하였지만 공사조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기본물길굴도갱굴진이 120m가량 진진했을 때였다.

뜻하지 않게 갱벽에서 석수가 터지였다. 갱바닥에는 시간당 많은 량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중대장 리철남, 대원들인 김현일, 리진철, 유성진동무를 비롯한 2중대원들이 지체없이 통나무를 그러안고 물이 터진 개소로 육박했다. 양수기의 능력도 모자라 광차에 물을 퍼담으며 치렬한 전투를 벌려 5시간만에 드디여 어려운 개소는 극복되였다.

북방의 산발속에서 불려나는 위훈담이 어찌 그뿐이랴.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리혁철동무와 비력처리전투에 갱정적으로 뛰어드는 운전사들…

이런 결사관철투사들에 의해 려단이 맡은 기본물길굴도갱굴진전투장에서는 지금 공사초기보다 3.5배이상의 굴진실적이 기록되고있으며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설비운반전투에서 창조된 기적

황 해 북 도 려 단 에 서

단천발전소건설은 협준한 산발과 사귈치는 강을 대상으로 하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전투이다.

공사과정에는 최악의 조건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위훈담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지난 5월 어느날이였다. 물길굴공사를 맡은 황해북도려단앞에는 절벽종려에 있는 제일 긴 11-1갱안으로 중량이 수십t이나 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나섰다.

350m의 수평굴진을 끝내고 나머지 백수십m구간의 경사정굴진을 진행하자면 시급히 권양기를 설치해야 하였기때문이였다.

설비운반문제를 놓고 려단지휘관들의 협의회가 여러차례나 벌어졌다.

육중한 권양기의 전동기와 감속기, 본체를 분해하고 운반한다고 해도 매 부분품의 중량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였다. 산비탈의 경사가 급하여 자칫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삼수호의 수위가 낮아진 다음 설비운반전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없었다.

한시바삐 권양기를 막장안에 설치해야 기본물길굴진설성과를 확대할수 있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산악돌파전을 벌리자.

류정민, 리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갱공사를 맡은 전투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더 깊이 새겨주는 한편 발새워가며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했다.

기성판에를 타파하는 설비운반문제를 놓고 려단지휘관들의 협의회가 여러차례나 벌어졌다.

육중한 권양기의 전동기와 감속기, 본체를 분해하고 운반한다고 해도 매 부분품의 중량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였다. 산비탈의 경사가 급하여 자칫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삼수호의 수위가 낮아진 다음 설비운반전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없었다.

한시바삐 권양기를 막장안에 설치해야 기본물길굴진설성과를 확대할수 있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산악돌파전을 벌리자.

류정민, 리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갱공사를 맡은 전투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더 깊이 새겨주는 한편 발새워가며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했다.

기성판에를 타파하는 설비운반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려단장의 신호에 따라 분해된 감속기, 전동기 등 수십t에 달하는 부분품들이 대차에 실리였다.

전투원들은 수동권양기로 대차를 끌어당기며 한치한치 설비를 운반해갔다.

대차가 전진하며 산비탈면의 암반과 나무뿌리를 넘어 통과할 때마다 아츠러운 소리가 나며 설비가 기우뚱거리였다. 절벽을 카까이한 구간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분분초초가 흘렀다.

단천발전소건설을 기어이 제기일에 완공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선 결사관철투사들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하던 설비운반전투는 불과 4일동안에 절속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와 함께 다른 설비들도 갱안에 설치함으로써 려단에서는 11-1갱의 경사구간에 대한 굴진전투를 계속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대흥지도국려단에서-

당의 사상관철전에서 강력한 견인기가 되여

락랑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정책관철의 성과여부는 시, 군당위원회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 당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집행단위인 시, 군당위원회들이 당정책관철에서 강력한 견인기가 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락랑구역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 그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시, 군당위원회가 견인기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정책에 민감하여야 한다.

당에서 제일 관심하고 중시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두고 늘 생각하며 당의 의도를 포착하는 즉시 집행대책을 세우는것은 이곳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락랑샘물공장건설이 시작되게 된 동기를 놓고보자.

두해전 가을 어느날 최봉준구역당위원장이 수질이 좋은 샘물원천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급히 진행할것을 밝기하였을 때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하자마자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구역당책임일군의 혁신적인 일본새에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묻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그들은 깊이 깨달았다.

탐사가 시작된지 며칠만에 전진동지역에서 수질이 좋은 샘물원천을 찾게 되자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지체없이 샘물공장건설을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웠다. 단계별계획을 정확히 세운데 기초하여 능력있는 구역당일군이 직접 책임지고 건설을 내밀도록 하였다. 샘물공장건설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금대고급중학교를 구역적인 본보기단위로 꾸리게 된것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할데 대한 당정책을 접수한 즉시 구역당책임일군은 금대리에 나가보았다. 당의 의도에 비추어볼때 너무도 뒤떨어진 금대고급중학교의 실태를 료해한 그는 대담한 결심을 내렸다.

본때의 단층건물을 통째로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2층짜리 새 교사를 일떠세우자. 액정텔레비존과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수단들과 멋진 교구비품들을 갖추어주고 수영장도 건설해주자. …

얼마후 금대고급중학교건설이 시작되였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이 당정책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것은 당의 의도를 재빨리 포착하고 스스로 일감을 찾는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지난해에 송남고급중학교를 전국적인 본보기단위로 꾸리고 락랑소학교의 체육관을 개건한것이 대표적실례로 된다.

구역당위원회가 구역앞에 나선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는 속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수 있은것은 지난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에서 후대교육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민감하게 포착하였기때문이다.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

올해 3월 양어바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되였을 때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해당 일군들이 지난 시기에 제시된 양어와 관련한 당의 방침들을 깊이 연구하도록 한데 기초하여 협의회를 열었다.

최근년간 구역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양어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왔다. 두해전 청년두단종어사업소를 훌륭히 개건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업소에 미꾸라지종어장을 건설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양어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면 질적적으로 먹이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진지한 토의끝에 배합먹이생산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양어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새 일감을 찾은 일군들은 곧 그와 관련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이러한 실례들을 놓고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 어느 단위나 다같이 당정책을 접수하지만 그 실천을 위한 작전을 세우고 일관을 벌리는데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하다면 당정책에 대한 민감성은 어떻게 생기는것인가.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당정책학습과정을 분석해보자.

주목되는것은 우선 당정책학습을 일정한 계기때만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하는것이다.

구역당책임일군들은 협의회나 사업총화를 할 때 수시로 당정책에 대한 일군들의 인식정형을 료해하군 한다. 이렇게 하니 일군들이 당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품을 들이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해당 부문, 담당단위 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방침들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늘 학습하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주목되는것은 또한 당정책의 진수를 옳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학습을 심화시키는것이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되면 지난 시기의 당정책들과의 련관속에서 헌시기 당의 의도를 깊이 연구해보게 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헌지시도의 길에서 하신 한마디의 말씀에서도 당조직의 몫을 스스로 찾아보는것을 체질화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은 당중앙의 사상을 뼈속깊이 새기게 되였고 당정책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되였다.

시, 군당위원회의 견인기적역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당정책관철을 선두에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칠두칠미 집행자라는 관점과 립장에서 당정책관철의 앞체를 메고 내닫리며 자기 손으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것은 이곳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기풍이다.

지난 시기 구역당위원회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당정책이 제시되면 아래단위들에 전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총화하는것으로 자기 사업을 대치하는 편향들이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구역당위원회가 견인기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었다.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불을 걸었다.

부장이상 일군들부터 락랑박물관, 룡동영화관, 어린이교통공원을 비롯한 종요대상건설을 하나씩 맡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주변의 면모를 일신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평양종등학원건설이 진행될 때에도 구역당일군들은 직접 한개 대상을 맡아 본보기로 꾸리였다.

지난 4월초 어느날 구역급기관들에는 비상소집구령이 내려졌다.

어느 한 종요대상건설에서 구역이 맡고있는 건물의 1층층막공사를 빠른 기간에 접속하자면 지원로력이 필요했다. 아래단위들을 발동하여 필요한 인원을 보장할수도 있었지만 구역당위원회는 구역당일군들을 비롯한 구역급기관 일군들로 전투를 벌릴것을 결심하였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간 일군들은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전투를 벌려 48시간만에 층막공사를 끝냈다. 일군들의 일본새는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구역당위원회가 일군들을 전투장으로 무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떠받들려 구역은 시작으로 제일 방대한 대상공사를 맡았지만 언제나 제일 높은 곳에 붉은기를 휘날릴수 있었다. 견인기적역할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그것을 직접 집행하는 초급당조직들과 당세포들이 자기의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옳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 견인기적역할을 해야 하는것이 바로 시, 군당위원회들이다.

구멍탄생산공장들을 개건하여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풀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구역연료사업소에서 현대적인 구멍탄생산기지를 건설할 때였다.

종업원의 대다수가 너성들인데다가 낮에는 공급사업을 하고 저녁에는 건설작업을 하다보니 모두가 지치였고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구역에서 로력지원을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사업소초급당일군에게 구역당책임일군은 이랑 본보기단위로 꾸리기로 결심하고 달라붙은 이상 끝까지 자체의 힘으로 건설을 내밀어보라고 교무해주었다. 그러면서 예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다고,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들이대라고 방도를 찾겨주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별로 현장에 이동식속보판들을 전개하도록 하고 그 리용정형을 매일 정상적으로 총화하였다. 한편 종업원들이 일하다가도 마이크를 잡고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게 하였다. 격식없는 오락회는 전투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여기에 구역당위원회의 작전에 따라 강연선전대, 학생취주악대가 집중포화를 들이대니 건설장은 그야말로 불도가니나냥 끓어번졌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초급당위원회가 바른 일을 할수록 종업원들의 생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가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는 한편 집행위원들로 가정방문을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면서 마음과의 사업을 심화시키는 속에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 지난해 10월 구멍탄생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올해 3월 락랑옷공장에서 학생교복생산전투가 벌어질 때였다.

자체가 높게 보장된데다가 생산해야 할 량은 이전의 3배이상이나 되였다.

재봉1작업반을 돌아보면 구역당책임일군은 이곳 당세포당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현장에서 열린 당원협의회에서 구역당책임일군은 절절히 말하였다.

학생교복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이다. 시간은 촉박하고 로력은 긴장하지만 죽으나사나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뼈에 새기고 결사전을 벌리자. 당세포의 전투력을 보여주자. …

자리를 차고 일어선 당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전투에 달라붙었다. 청년돌격원들과 직맹원들도 당원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고 뜀뛰는 전투를 벌리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전투원들을 교무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구역종합식당에서는 이동식사물, 상업망에서는 당과류를 보장하게 하였으며 종업원식당에 수산물도 보내주었다.

드디어 재봉1작업반에서 전투과제를 끝낸데 이어 재봉2작업반에서도 맡은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3월 20일까지 교복생산을 전부 끝내게 되였다.

이곳 구역당위원회사업은 시, 군당위원회들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가 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대답을 준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제품마다에 애국의 구슬땀을 배쳐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문천발브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참된 복무자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평안북도인민병원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정안북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 그 호평속에는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노력도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한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훌륭한 자식이나 제자들뒤에는 그들을 어엿하게 키워 내세운 어머니, 스승이 있기마련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곳 의료일군들을 참된 복무자로 키우고있는 초급당일군의 뜨거운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할것이다. 그가 바로 종업원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박창호초급당위원장이다.

그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늘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깊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하여 애쓰며 뛰고있다.

하다면 그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것은 무엇인가.

몇해전 그는 어버이장군님의 뜻과 필생의 념원을 받들어 인민사랑의 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릴 글작품집을 준비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높은 경지를 대할 때마다 그는 끓어오르는 흠모심을 누를길 없어 붓을 달렸으며 자기의 격동된 심정과 결심을 피력하였다.

이렇게 성의껏 마련한 글작품집 《복무자로 한생을 살렸너다》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삼가 올리게 되였다.

대중발동을 묘술있게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단위답게!

초급당일군들은 이런 결심밑에 병원을 더 잘 꾸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를 위한 교양사업을 표술있게 진행하고있다.

병원에서 외래병동을 건설하고있던 때였다. 환자치료를 하면서 병동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건설력량도 자체도 부족하였다. 오죽했으면 병동건설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여 일부 일군들이 전문건설단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겠는가.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에서 방도를 내놓았다.

이동치료대에 나갔던 파장이 상 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로 교양사업을 진행하자는것이였다.

사실 병도업적단위들에 나가 치료전투를 벌리면서 그들은 많은것을 보고 느꼈다. 생산전투를 벌리는 긴장한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생산문화, 생활문화차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명도업적을 빛내여나가고있는 모습을 본 그들의 충격은 컸었다.

그들이 목격한것을 병원의 의사, 종업원들에게 알려준다면 그 자체가 힘있는 교양으로 될것이라고 초급당일군들은 타산하였다.

이렇게 되여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것이다.

일군들이 생각했던바대로 실효는 컸다.

의사, 종업원들이 분발하여 병동을 꾸리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것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짜고들어 의사,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더욱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전형단위를 창조하는 한편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병원은 초급당결정서에 반영된대로 인민병원답게 번듯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늘어나는 감사편지

요즘 이곳 인민병원으로는 도안의 주민들이 보내오는 감사편지가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다.

지난 한달 남짓한 사이에 온 감사편지만 해도 백수십통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 이곳 의료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바치고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의료일군들이 발휘한 긍정적인 소행을 전하는 감사편지가 올 때마다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교례치료부문의 리경희부원장과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의하여 한 특류영예군인이 250여일만에 대지를 활보하게 되였을 때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에게 기적적인 일이 생기였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의료일군들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감사의 편지를 썼다.

초급당위원회는 그 편지를 가지고 독보도 해주고 여러 게기때마다 그곳 의료일군들을 내세워주었다. 이에 고무된 교례치료부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여러명의 특류영예군인들을 치료하여 완쾌시키였다. 그들의 모범을 다른 단위들에서도 적극 따라배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때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청수혁명사적관 관리원이 도인민병원으로 후송되여 이비인후 및 두경부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구사일생으로 소생하게 된 사연을 적은 감사편지가 왔을 때에도, 신의주시 석하2동에서 사는 김로인이 순환기내과와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된 내용을 적은 감사편지가 왔을 때에도 초급당위원회는 그들의 긍정적인 소행을 놓고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하였다. 이 과정에 환자치료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그럴수록 청원편지와 함께 감사편지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늘어나는 감사편지, 이것이야말로 인민의 충복된 자각을 안고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이곳 의료일군들에게 주는 인민의 값높은 표창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전국전력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전력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7일과 8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학,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정성시 송떼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 박사원생 등이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는것과 함께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이며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60건의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발표회기간 보이라의 열효률을 높이고 연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화력발전소보이라물관세척 및 부식방지제》, 《교류계통융무간격금속산화물피뢰기》 등의 론문들이 경제적효과성과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모범강연강사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개선하고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당초급선전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큽니다.》

당초급선전일군의 높은 영예와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개선하고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당초급선전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큽니다.》

당초급선전일군의 높은 영예와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며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모범을 보인 강연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강사의 실력이자 강연의 실효

조선로동당출판사 부장 김현남동무

김현남동무가 강연강사로 활동해오면서 견지하고있는 하나의 사업준칙이 있다.

높은 실력으로 강연의 실효를 담보하는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의 일이다. 그때 중앙의 어느 한 강연회에서 한 일군이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와 관련한 강연을 진행한적이 있었다.

청강자로서 강연을 듣고난 그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참신한 강연을 들었던것이다. 그 내용을 자신의 강연에도 반영한다면 반드시 실효가 클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연의 결과는 생각과 달랐다. 대중에게 감흥을 주지 못한것이다. 실력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날의 일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하고있다. 좋은 제강을 안겨주어도 출연자의 실력이 높지 못하면 대중의 심금을 틀어잡을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한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정했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 다방면적인 지식습득, 대상의 특성에 맞는 강연수법활용, 강연술과 형상력결비…

이 모든것을 완전무결하게 갖추기 위해 그는 무섭게 일주하였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 당정책을 깊이있게 학습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또한 강연술을 세련시키기 위한데도 큰 힘을 넣었다. 웅변술을 높이기 위해 통속적이면서도 구수하게 말하는 훈련도 했다. 그리고 모범적인 강사들의 강연을 직접 혹은 녹화를 통하여 보면서 좋은 점들을 본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대중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를 당정책에 립각하여 알려주기 위한 방도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지난해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떨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는 속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전국의 강연강사들로부터 그와 관련한 상식을 알려줄것을 부탁하는 편지와 전화들이 왔다.

자신의 실무수준을 높여나가는 좋은 계기로 여긴 그는 필요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인민대학습당에도 갔으며 전문가들의 방조도 받았다. 그 내용을 본인들에게 알려주고 강연에도 구현했는데 반향이 좋았다. 이렇게 피타게 노력한 결과 그의 강연은 청강자들로부터 《정책적대가 확고하고 내용이 풍부한 강연》, 《정보량이 대단한 강연》이라는 호평을 받게 되였다. 이 나날에 김현남동무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도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으며 많은 강연제강들을 집필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강사의 실력에 의해 강연의 실효가 결정된다. 이것이 김현남동무가 실천속에서 찾은 좋은 경험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 영 길

성공은 피타는 노력의 산물

강동군인민보안부 과장 최영준동무

지난 20년간 직외강연강사로 사업해온 강동군인민보안부 과장 최영준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강렬하게 느낀것이 있다.

정말 아는것이 많은 팔방미인이라는 점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그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자료들과 상식들을 줄줄이 내리엮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알고있는가 하는 물음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강연강사들에게 있어서 생동한 형상력과 높은 웅변술은 응당 갖추고있어야 할 필수적인 정표입니다. 때문에 누가 더 피타게 노력하여 많은 자료를 알고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 하는데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는 기본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인가 아래단위의 농장에 나가 강연을 진행할 때의 일을 실례로 들었다.

강연의 기본주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더 깊이 인식함에 대한 내용이였다.

지금까지 다져온 웅변술과 형상력, 머리속에 있는 지식으로도 열마든지 대중앞에 나설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료작업에 큰 품을 들이였고 알고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놓고 생동한 대비자료를 얻어쥐느라 그는 웅근 하루품을 들여가며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과 여러가지 상식자료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이른바 발전된 경제와 문화를 자랑하며 문명에 대해 떠들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있는 기아와 빈궁, 실업위기, 자살성행은 물론 물위기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그대로 강연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강연이 끝나자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한 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맡은 일을 다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그들은 퇴근시간이 지났어도 포전을 뜨지 않고 많은 일을 해제꼈다.

그것을 보면서 최영준동무는 다시한번 확신했다.

풍부한 자료탐구와 현실의 적절한 결부, 바로 여기에 성공의 기본열쇠가 있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열정으로 본신혁명과업을 수행하면서도 강연강사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의 하루일과는 놀랄만큼 짜여있다.

새벽 4시 기상, 5시까지 책읽기, 아침 7시부터 7시 45분 자체학습…

그는 이렇게 자기자신을 체적질하며 이악하게 노력해나갔다. 그 과정에 제17차 전국강연경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대중의 아낌없는 갈채를 자아냈다.

그의 강연강사활동을 놓고 볼 때 인간에게 타고난 재능은 있을수 있어도 타고난 대가란 있을수 없듯이 누구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반드시 성공할수 있다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 명 철

대상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소장 김태서동무

강연의 실효를 높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20년간 강연강사로 사업해온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소장 김태서동무는 말했다.

우선 강연준비를 잘해야 한다. 강사의 웅변술 또한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있다. 대상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강연을 구수하게 하는것이라고 본다.

김태서동무가 이 점을 중시하게 된 계기가 있다.

그가 처음으로 이동강연을 한것은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의 어느 한 작업반의 포전에서였다. 첫 출연에서부터 본때를 보이리라 결심하고 강연준비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였을 때 그는 작업의 협찬을 리용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예상외로 청강자들의 감흥은 크지 못하였다.

강연의 실효를 높이지 못한 원인을 찾기 위해 김태서동무는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그는 자기의 강연이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지 못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되였다. 단위의 특성과 실정을 알고 강연에 구현하기 위한 준비가 미약한것이였다.

사실 강연강사가 된 후 그가 자기 단위와 련관단위들에서 강연을 능란하게 할수 있은것은 그 단위들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농장의 실정도 잘 모르고 강연을 하였으니 어떻게 농장원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었겠는가.

교훈을 찾은 김태서동무는 강연준비를 다시 하였다. 농장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후 그와 결부하여 강연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농사일과 관련한 직종별 표현들까지 섞어가며 구수하고 설득력있게 당정책을 해설해주었는데 그 실효는 대단히 컸다. 확실히 농장원들의 표정이 달랐다. 그들은 정말 많이 배웠다고, 다시 듣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그리고는 모내기전투에 떨쳐나 혁신을 일으켰다.

강연에 앞서 사전준비를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깊이 새긴 김태서동무는 더욱 분발하였다.

이튿날 다른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농장원들속으로 들어갔으며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실효성있게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그는 계획하였던 농장들을 순회하면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런 경험을 살려 사리원프락또르부속품공장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진행한 그의 강연은 매번 과녁을 명중할수 있었다.

얼마전 김태서동무는 온 나라가 다 아는 모범강연강사의 영예를 지니였다.

참된 강연은 무엇인가. 강연의 실효를 높이자면 먼저 군중속으로 들어가라. 손에 키름을 묻히고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군중과 어울리는것을 생활화하라. 그래야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 철 법

철의 도시의 애기궁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해당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어린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얼굴에 그 나라의 미래가 그대로 비껴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얼마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면에 싣기 위해 철의 도시 송림시에 자리잡고있는 3중영예의 1월 10일모범탁아소인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애기궁전을 찾았다.

멀리서도 알아보기 쉽게 나붙은 《애기궁전》이라는 현판이 우리의 눈가에 안겨왔다.

애기궁전, 이 부름을 조용히 되뇌여보느라니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오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연건평이 무려 3만여㎡에 달하는 이곳에는 4, 5, 6층짜리 호동들과 아동병동을 비롯한 큰 건물들, 유희기재들이 설치되여있는 넓은 운동장 등이 조화롭게 어울려있었다.

우리와 만난 애기궁전의 총장은 깊은 감회에 잠겨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황철로동계급의 자녀들을 위한 애기궁전이 일떠선 때로부터 어느덧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애기궁전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송림시의 경치아름다운 곳에 현대적인 탁아소를 일떠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주체62(1973)년 6월, 건물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애기궁전》이라는 뜻깊은 이름도 지어주시고 어린이보육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선물들을 보내주시였다.

우리는 총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3호동 교양반에 들어섰다.

교양반은 갖가지 놀이감들이 천정에 매달려있는 유희실과 2층침대들이 가지런히 놓인 잠방들로 되여있었다.

보육원 정영복동무가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 궁전에는 이런 방들이 수백개나 된답니다. 해빛이 잘 드는 동남쪽으로는 침실, 유희실이 있고 서북쪽으로는 위생실, 목욕실이 배치되여있어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알고보니 그는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40여년세월 보육원으로 일해오고있었다.

그가 입고있는 흰옷에 《요람》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그 두 글자에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정을 쏟아부으며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성실한 보육원의 한생이 어려있는듯싶어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우리가 염소젖을 맛있게 마시고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을 때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염소들도 많이 키워 아이들에게 영양가높은 염소젖을 정상적으로 먹이고있습니다.》

자랑이 한껏 어린 정영복동무의 목소리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애기궁전에서는 이밖에도 자체의 힘으로 부업밭과 남새온실을 꾸려놓고 배추, 무우, 오이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들을 심고가꾸어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애쓰는 보육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엿볼수 있었다.

이윽고 우리의 발걸음은 4호동으로 향하였다.

4호동은 종합놀이장인데 3층으로 되여있었다. 1층은 물놀이장, 2층은 통일렬차놀이장, 3층은 지구의놀이장이였다.

우리는 물놀이장과 통일렬차놀이장을 돌아보고나서 3층으로 올라갔다.

놀이장의 가운데에는 둥그런 지구모형이 있었고 둘레를 따라 회전그네, 미끄럼대 등 각종 유희설비들이 갖추어져있었다.

마침 놀이장에서는 귀여운 어린이들이 유희설비들을 타고 손을 높이 흔들며 기쁨에 넘쳐 놀고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한 보육원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그는 20여년세월 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김영숙동무였다.

《저도 애기궁전의 〈졸업생〉이랍니다.》

얼굴에 웃음을 함뿍 머금고 그가 하는 말이였다.

김영숙동무가 처음 보육원이 되였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보육원의 사업은 남의 집 아이보개일이 아니라 우리 황철의 래일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라고 절절히 당부했다고 한다.

그날의 그 당부가 오늘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온다면서 그는 말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애기궁전까지 일떠세워준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황철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애들이 황철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기둥들이여서 더더욱 정이 간답니다.》

이것은 나라의 왕들인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기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헌신의 땀을 바쳐가는 애기궁전의 미더운 보육원들의 마음이기도 하였다.

우리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초소에서 일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헌신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이들이 더없이 돋보였다.

우리 당의 해빛같은 사랑속에 일떠선 행복의 요람들에서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자라나는 귀여운 꽃봉오리들, 참으로 우리 조국의 앞날은 그 얼마나 양양하고 아름다울것인가.

억세게 이어질 황철의 대, 보다 휘황한 사회주의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애기궁전을 떠났다.

본사기자 신 철

구장고치생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교육사업의 주인된 심정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 3월초 구장소학교 2호교사를 개건하기 위한 군내 기관, 기업소 일군협의회에 참가하였던 구장고치생산사업소 지배인 유성남동무는 깊어지는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사업소가 개건공사의 많은 몫을 맡아서만이 아니였다.

군당책임일군이 교육지원사업은 다른 모든 일에 앞세워야 할 우선적인 사업이며 모두가 주인이 되여 떨쳐나서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그루를 박아 강조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우선적인 사업, 책임적인 사업!

협의회가 끝나는 즉시 유성남동무는 사업소의 일군, 기술자들을 데리고 구장소학교를 찾았다.

2호교사안팎을 돌아보며 사업소가 해야 할 일감들을 스스로 찾는 그들을 보며 소학교 교장, 당세포위원장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학교를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던 그들이였다. 콤퓨터들과 증폭기, TV 등 교육의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설비, 기자재들을 남먼저 안고왔던 고치생산사업소 일군들이 오늘은 2호교사개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남먼저 달려온것이 아닌가.

하지만 학교일군들이 받은 감동은 그밖이 시작일따름이였다.

며칠이 지나 지배인을 비롯한 고치생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2호교사개건에 필요한 세멘트며 철근, 혼석, 목재들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을 앞세우고 달려왔다. 도착하자바람으로 개건공사에 달라붙어 불이 번쩍나게 일판을 펼치는 고치생산사업소 종업원들, 그들의 앞장에는 지배인 유성남동무가 서있었다.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종업원들과 일손을 같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자재가 떨어져가는 기미가 보이면 그길로 스스럼없이 그것을 맡아안군 하는 지배인, 그의 실천행동은 종업원들의 기세와 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주려는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건공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개건공사가 마감고비에 이른 어느날 유성남동무는 또다시 급히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공사지휘로 드바쁘게 현장을 돌아보는 속에서도 다음날 미장작업에 필요한 세멘트가 바닥나는것을 떠여보았던것이다.

그날 밤이 퍽 깊어 세멘트를 싣고온 그를 맞은 학교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드넓은 면적의 콩밭비배관리와 누에치기 그리고 중요건설장지원과 어린이교통공원건설, 사업소꾸리기와 살림집건설 등 고치생산사업소 지배인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에게는 교육지원이 언제나 급선무였다.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이 10년 발전한다는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밤길, 먼길도 많이 다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자기가 맡아 두어깨에 걸머지군 하는 지배인이였다.

학교일군들이 감동을 금치 못해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올해를 또다시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교육중시사상을 충정다해 받들자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2호교사개건공사의 많은 몫을 맡아 짧은 기간에 넘먼저 끝냈다.

군일군들과 학교교직원들이 찬사를 금치 못할 때 그들은 또다시 마감단계에 이른 어린이교통공원건설장으로 향하였다.

본사기자 김치곤

우리는 모두다 한식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몇해전 3월 어느날 저녁 수도의 통일거리는 보람찬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그때 어느 한 뻐스정류소에서 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여기 환자가 있어요!》

이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나이지숙한 한 사람이 배를 그러쥔채 온몸을 옹송그리고있었다. 걱정어린 눈빛들과 목소리들이 환자를 에워쌌다. 누구나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하였지만 뜻밖에 당한 일인지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어하였다. 잠시후 대학생인듯 한 청년이 환자앞에 앉았다. 《내 등에 업혀주십시오. 빨리 병원에 가야지 걱정만 하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을 헤집고 나서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가만, 어떤 경우에는 환자를 최대한 안정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는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바로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의사 리영진동무였다. 이윽고 환자를 등에 조심히 업으며 그는 주위사람들에게 말했다.

《너무 걱정들 마십시오. 큰 병은 아닙니다.》

그는 환자를 업고 아무 일도 없는듯 총총걸음을 놓았다. 얼마후 집에 들어선 리영진동무는 안해에게 흔연히 말했다.

《뻐스정류소에 쓰러져있더구만.》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닌지라 안해는 례사롭게 환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는 약함을 들고나왔다.

그날밤 그의 가정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보건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리영진동무의 부모도 함께 밤을 지새웠다.

얼마후 자리를 털고일어난 환자는 리영진동무에게 정말 고맙다고, 사실 자기는 대동군에 사는 영예군인인데 중앙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리영진동무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영예군인동지였군요.》

환자를 위하는 그의 마음은 참으로 극진했다. 영예군인이 완쾌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갈때에는 도중식사며 몸보신에 좋은 보약들과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한가득 마련해주었다.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전화로 영예군인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다. 그리고 명절날, 생일날은 물론 때없이 영예군인의 집으로 찾아가 정을 두터이하였다.

이렇게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수년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

리영진동무의 진정에 감동되여 영예군인이 그가 일하는 병원당조직을 찾아갔을 때 당일군은 그의 소행을 전하는 수십통의 감사편지들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달리 살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편지들에는 리영진동무가 회천연초소군관의 6살 난 나어린 딸을 도맡아 수십일동안 뜨거운 정성을 기울여 완쾌시키고 퇴원할 때에는 솜옷이며 여러가지 옷들을 안겨준 일, 환자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구미에 맞는 음식들도 성의껏 마련해주고 생일상까지 차려준 사실 등 가지가지의 미담들이 적혀있었다. 인간사랑의 정이 가득히 차넘치는 우리 사회에서만이 있을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였다.

얼마나 돋보이는 청년인가.

이 땅에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정을 지니고 미덕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보건일군들, 훌륭한 청년들이 수없이 많다.

사람들모두가 화목한 대가정의 한식솔로 사는 나라, 남이 없는 내 나라는 정녕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인가.

본사기자

산골군에 넘치는 향기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우리 군에서 만든 목제품입니다.》

맹산군을 돌아보는 과정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였다.

군안의 학교와 유치원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도 군에서 만든 목제품들을 리용하고있었다.

《철웅산》이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그 목제품들은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생산한것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길은 자력자강에 있습니다.》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은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에 불과하지만 지난 수십년동안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고 군주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충족시키고있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목제품들은 그 질이 높아 소문이 났다고 한다.

몇해전에는 질좋은 제품들을 펑펑 생산하고있는 조합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도 진행되였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찾아 처음으로 들린 제품견본실은 여러가지 목제품들로 차있었다.

책상, 의자, 침대, 밥상, 나들문과 TV장, 지팽이와 사진액틀 등 크고작은 목제품들이 빼곡이 진렬되여있었다. 색갈도 아름답고 형태도 다양하며 퍽 든든해보이는 목제품들은 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

여러가지 장식이 새겨진 문들이 보기 좋다고 하니 관리위원장 리용남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고장에 흔한 자재와 우리 종업원들이 창안제작한 설비로 만든 목제품입니다.》

말끝마다 우리의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관리위원장의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자재로 쓰이는 나무는 산골지방에 흔한것이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설비는 어떤것이겠는가 하는 우리의 의문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관리위원장은 우리를 생산현장으로 이끌었다.

한 기대를 가리키며 그것이 수리공 리정수동무가 만든 이음기라고 했다.

자투리자재를 리용하기 위한 설비였는데 리정수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만들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조합에서는 월말이면 제품전시회를 진행한다. 새 제품개발에 목적을 둔 이 전시회에는 조합의 관리위원장으로부터 수리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업원들이 다 참가하는데 자재로는 절약창고에 있는 자투리나무토막을 꼭 써야 한다. 때문에 만드는 제품은 대다수가 옷걸이나 액틀, 공예품같이 작은것이였다.

어느 전시회때 리정수동무는 관리위원장으로부터 큰 나들문을 하나 제작해보라는 과업을 받게 되였다. 자그마한 자투리로 큰 문을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그는 자투리자재들에 홈을 내여 서로 이어서 긴 각재를 만들었고 그것을 조립하여 문틀을 짤수 있었다. 그랬더니 이음부분들이 마치도 장식을 한것처럼 보였고 그우에 색칠까지 하니 아주 멋진 문이 되였다.

그것을 전시회에 내놓았는데 종업원들이 어떻게 되여 자투리로 문을 만들면서 장식까지 할 생각을 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그들은 자투리각재들의 이음부분을 제작자가 장식을 하기 위해 만든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만큼 자투리자재로 만든 제품은 훌륭했다.

그후 리정수동무는 자투리자재로 작은 목제품만이 아니라 각종 크기의 목제품을 만들수 있게 설비를 제작하게 되였고 그때부터 그 이음기로는 문이며 장식장 등 모양과 크기가 각이한 각종 목제품들을 펑펑 생산하게 되였다.

눈맛이 있어 좋고 견고해서 좋으며 많은 자재를 절약해서 좋으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기였다.

지혜를 발동하고 정열을 쏟으니 자투리나무토막들도 유용해졌고 새 제품가지수도 부쩍 늘어났다.

쓸모없던 부산물을 모조리 동원하여 생산에 리용하니 좋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팡팡 내밀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으니 일할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소중히 여기고 정을 기울이는 《철웅산》목제품들이였다.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고 제힘으로 래일을 설계해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투쟁기풍, 그것이 바로 자력자강의 멋, 자급자족의 원천이였다.

본사기자 오은별

의료일군의 본분을 지켜

평대탄광병원 고려치료과 의사 리국철동무는 탄부들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진 의료일군이라는 높은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하고있다.

높은 실력이 있어야 환자치료를 잘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그는 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고려치료와 관련한 책들은 물론 여러가지 의학도서들을 파고드느라 손에서 책이 떨어질줄 몰랐고 그의 사색과 탐구는 앉으나서나 늘 새로운 고려치료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였다.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떠나 의료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한순간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리국철동무였다. 하기에 그는 지난 4월 여러명의 굴진공들의 치료를 자진하여 맡아안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였으며 퇴원후에도 매일과 같이 집에 찾아가 성의껏 치료해주어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석탄생산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였다.

맡은 임무에 대한 그의 책임성은 훌륭히 꾸려진 의사실과 치료실 그리고 그쯘히 갖추어진 의료기구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당에서 그처럼 아끼고 내세워주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도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다.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탄부들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그를 사람들은 우리 의사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로동통신원 김봉일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살고 버리면 죽는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있으며 삶의 권리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락원을 지키고 꽃피워나가는데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습니다.》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살아가는 정과 사랑의 바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락원, 이보다 더 좋은 품이 어디에 있으랴.

사회주의가 없으면 나자신도,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아들딸들의 밝은 미래도 없다!

이것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철석같은 신념이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에서 지난 세기 90년대를 넘어 오늘까지도 쉬임없이 울려나오는 절망과 탄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랬다.》

자본주의를 복귀하게 되면 온갖 물질적번영을 누리게 될것이라는 허황한 환상에 사로잡혀있던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인민들에게 차례진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인간의 존엄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참된 삶을 빼앗긴것뿐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날로 어려워지는 생활형편과 커가는 불안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였다.

1993년에 발표된 자료만 놓고보아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가 복귀된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년초이래 769명의 어린이들이 량부모를 다 잃었다고 전하였다.

한때 밝은 웃음과 양기에 넘쳐있던 그들,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어리광을 부리고 재롱을 피우던 그들이 어찌하여 부모를 잃고 이 지경이 되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다.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던 그들의 부모들이 더는 살아갈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뒤에 남기고 자살하는 그들의 심정인들 오죽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생존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엄혹하기에 피눈물을 머금고 자살의 길을 택하였던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살자가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났는데 1992년에는 10만명당 11.3명에 달하였고 1993년에 들어와서 9개월동안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수천명이나 되였다.

당시 이 나라 보건성의 자료에 의하면 이전 시기에 안정된 일자리에 습관되였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실업자가 될수 있다는 절망과 가족을 먹여살릴 가능성이 없게 된데 대한 비관에 빠져있는데 이것이 흔히 자살의 동기로 되고있다고 했다.

자살자들로 말하면 그 대다수가 《자유화》와 《서방화》를 바라고 《번영의 즐거운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였으며 그 《즐거운 희망》이 조각나자 자살의 길을 택했던것이다.

이 나라에서 자살현상이 제일 많다고 하는 어느 한 지역의 한 자살자는 유서에 이렇게 썼다.

《나는 삶에 대해 무한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나에게서 그것을 깡그리 빼앗아갔다. 〈자유화바람〉이 나에게 〈화려한 꽃바람〉을 안겨줄것으로 꿈꾸었던 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때늦은 후회이다. 지난날이 그립다. 그때에는 나에게도 안정된 일자리와 단란한 생활의 보금자리, 사회적혜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모든것을 잃었다. 아, 슬프다. 고통과 절망이 나를 자살의 길로 떠민다. 죽음만이 안식의 길이다. …》

어떤 나라에서는 그해 첫 5개월동안에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자살자가 25%나 증가하였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1 000여명이 자살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어느 한 나라의 동부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졌다. 그 나라 수도의 동부에 있는 한 병원의사는 사회주의제도의 붕괴가 시작된이래 죽는것이 위기를 모면하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고 간주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자살의 기분이 전염병처럼 퍼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생활은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질적측면에서만 그런것이 아니다. 정신적생활도 암담하다. 묻건대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며 죽어야 하는가.》

이것은 당시 자본주의가 복귀된 어느 한 나라의 녀성이 가슴을 치며 터친 고백이다.

출판물들은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 사람들이 겪고있는 생활상고통이 《자본주의의 복귀가 가져온 민생고》라고 밝히였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살고 버리면 죽는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의 실태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생명! 이는 오늘 썩고 병든 자본주의세계의 몸서리치는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사무치게 새기게 되는 진리이다.

무한한 감격과 환희속에 맞이하게 될 어머니조국의 창건 일흔돐을 앞둔 천만군민의 가슴속에서 신념의 목소리가 뢰성처럼 울려퍼진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이다!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들리라!

본사기자 조경철

죽음의 막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순간도 늦추거나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입니다.》

해방전 일제놈들이 경영하던 한 탄광에서 있은 일이다.

탄광에는 15살나이에 온 가족을 먹여살려야 할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고역살이를 치르는 소년탄부가 있었다.

그는 무거운 석탄짐통을 지고 50m가 넘는 아찔한 수직경사다리를 하루에도 몇번이나 오르내려야 했다.

일본인감독놈은 품값을 두배로 주겠다고 얼리며 그를 비롯한 탄부들을 폐갱으로 마구 들이밀었다. 총칼에 등을 떠밀리우며 막장으로 들어간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를 폐갱에서 하루 12-16시간씩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그가 탄광에서 일한지 석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아침을 굶고 폐갱에 들어간 소년은 감독놈의 딱따구리망치세례를 받으며 무릎을 치는 갱물속에서 석탄을 나르고있었다. 온몸을 땀으로 적신 소년이 가까스로 석탄짐을 지고 한치한치 굴밖으로 나오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굴천정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많은 탄부들과 함께 소년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밖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탄부들에 의해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20여명의 탄부들은 한꺼번에 생죽음을 당하였다.

탄부들이 기업주놈과 감독놈에게 죽은 사람들의 장례비를 요구하였지만 놈들은 그다음날 이른새벽부터 또다시 탄부들을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다. 더는 참을수 없었던 탄부들은 일본인감독놈을 때려눕혔다. 하지만 그들은 철창속에 갇혀 죽도록 매만 맞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소년은 참된 삶을 누리게 되였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나라를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다. 어머니조국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본사기자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지켜갈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빛을 잃은 메달, 버림받은 위훈

지난 세기 90년대 사회주의를 버린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 역기다림칸에서 있은 일이다.

사람들이 붐비는 역기다림칸으로 동냥을 하며 돌아오는 로인이 있었다. 바닥에 질질 끌리는 허줄한 옷자락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때마다 몸의 균형을 잃고 비칠거리면서도 그는 손만은 내밀줄 몰랐다. 그는 사람들앞에 다가설 때마다 투박한 손을 펴보이며 말하였다.

《이 메달을 받고 담배 한갑만 주시오.》

메달인즉은 쏘도전쟁에 참가하여 받은것이였다.

로인은 눈물이 글썽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전에는 나도 이 메달을 달고 떳떳이 살았지요. 그러나 이 메달도 이제는 한갖 쇠조박으로 되여버렸습니다. 인민의 세상은 사회주의밖에 없지요. …》

그러면서 사회주의붕괴가 자기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주었다고 울분을 토하였다.

사회주의제도는 그에게 행복한 가정과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안겨주었었다. 그는 사회적우대속에 걱정없이 살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복귀되면서 그는 지난날의 그 모든 생활을 하루아침에 빼앗기였다. 자식들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아버지를 남겨둔채 뿔뿔이 집을 나갔던것이다.

쏘도전쟁에 참가하여 받은것이라고 하는 위훈의 상징인 메달을 어찌 담배 한갑과 바꿀수 있으며 조국을 위하여 피를 바친 로병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비참할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비참한 모습은 로병만이 아닌 사회주의를 버린 동유럽나라 사람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였다.

본사기자 신현규

자주의 길에 민족의 존엄과 번영이 있다

세상에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며 남의 덕을 바라는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열린 문도 보지 못하게 된다. 종당에는 남에게 아부굴종하며 살아가는 미저리가 되고만다.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자기의 주전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고 남의 풍에 놀아나며 인민은 노예가 된다.

외세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주성을 견지해나가는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배격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처방》에 기대를 거는것은 매우 유해로운것이다.

력사적경험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강요와 회유에 의해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주적발전을 포기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였다. 경제의 자유화를 추진시킨 결과 나라의 경제명맥이 서방독점체들의 손아귀에 장악되고 국가는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나 잃게 되였다. 문화분야에서의 개방으로 서방의 반동적사상조류와 문화, 썩어빠진 생활풍조가 쓸어들어와 사람들의 민족자주의식이 마비되고 민족문화와 풍속이 심히 어지럽혀졌으며 사회에 무질서랑과 말세기적풍조가 만연되였다.

갈수록 격화되는 각종 분쟁과 혼란, 기아와 빈궁속에서 이 나라들은 더욱 취약해졌다.

현실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자주적발전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갈 때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낼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들의 강박에 굴종하면 지배와 예속을 면할수 없다.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하는것이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그 어떤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이미 이룩한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끝까지 고수할수 있으며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내흔드는 《민주주의》와 다당제라는 《처방》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례외없이 사회정치적혼란과 민족간, 종족간 분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었다.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다 적용될수 있는 《만능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기만술책에 넘어가 그들의 《처방》을 받아들게 된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국가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우고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일관하게 끝까지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정치에서의 자주는 경제적자립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정치에서의 자주와 경제에서의 자립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가 바로 자립적민족경제이다.

민족이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그를 단위로 하여 살며 혁명과 건설도 하게 된다. 나라살림살이도 나라마다 따로 하는 조건에서 그 나라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꾸려나가게 된다. 그런것만큼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경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움직여나가는 경제를 건설해나가는것은 그 나라의 원리이다.

력사에는 남의 도움으로 경제적발전을 이룩하였다는 나라가 없으며 다른 나라에 번영을 선사한 《구세주》도 존재한적이 없다. 자력갱생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공고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략탈적본성은 정책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기술력의 우세, 지들이 틀어쥔 국제금융통화체계 등을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압박과 략탈을 강화하고있으며 신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집요하게 강행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실수 없으며 정치적자주성도 고수할수 없게 된다.

국방에서 자위를 일관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생사존망과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평화를 파괴하고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정복하려는 적대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자기 나라를 남에게 지켜달라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제힘으로 나라를 보위하지 못하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폭력적인 외세의 짓밟이우에 오르게 된다. 이것은 지나온 력사가 말해주는 진리이기도 하다.

자체의 무장력을 강화하고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제를 세우며 국방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 때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수 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막아나서는 속에서도 눈부신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며 전진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앞에서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의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련속 울려나오고있다.

란자니아신문 《더 카디언》은 아프리카는 조선의 경험들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의 자력갱생의 정신 특히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철저히 실현한 경험은 아프리카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라고 강조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민족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자체로 살아나가기 위한 전략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은 외부세력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아프리카도 조선의 자력자강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우리 나라는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의 한길로 전진하였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될수 있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길에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라 명 성

종전선언발표가 선차적공정이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더욱 뚜렷해지고있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후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과 대조선전문가들이 조선반도정세를 주시하면서 그러한 견해들을 피력하고있다.

로씨야신문 《벨스까야 쥐즌》은 종전선언발표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로 된다, 조미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것이 유익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한 헤브싸이트는 조선이 비핵화를 실현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발언한 미국관리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이것은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된 사항들의 순서를 뒤집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데서는 순차가 있는 법이다.

알려진것처럼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계기로 조미관계는 가장 적대적인것으로 되였다.

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다. 하지만 우리와 미국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이로 하여 조미쌍방은 아직까지 총부리를 서로 마주하고 불신과 적대관계를 이어오고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닐수 없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바로 넌대와 세기를 이어온 조미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숭고한 목적에서 진행되였다. 이제는 조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이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종전선언발표가 정전협정을 정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수 있는 전제로 된다, 종전선언발표로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실현하고 평화협정체결에로 넘어가는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될것이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국제관계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는 홈페지에 글을 싣고 미국전문가들속에서 조미회담과 관련한 론의가 분분하다고 하면서 마사츄세쯔공과대학의 한 정치학교수가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서 조미사이의 평화체제구축을 첫 공정으로 규제하였다고 강조한데 대해 전하였다.

종전선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력사가들이 조미대결과정을 정가하면서 종전선언발표를 더이상 미루다가는 그것이 현시대에 력사가 가장 오래된 전쟁으로 기록될수 있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진정종식을 선언하는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첫 공정으로 된다. 종전선언발표로 조미사이에 군사적대치상태가 끝장나면 신뢰조성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세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오래전에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밝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쌍방이 다같이 움직여야 실현될수 있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여있다.

조미관계는 력사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큰걸음을 내짚어야 한다.

조 태 법

무너지고있는 《보수의 아성》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의 채택이후 남조선에서 북남관계개선이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는 가운데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워오던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이 크게 변화되고있어 내외의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시기 북남관계문제에서 대체로 보수적인 립장을 보이던 이 지역 주민들의 70%가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나서고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의 75%는 《지난 수십년간 박정희와 박근혜에게 혼을 빼앗기고 살았다.》, 《박근혜는 저들의 탐욕만 추구하고 경상도를 죽어가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박근혜탄핵은 응당한것이다.》라고 내놓고 비난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기념사업》이라는것들이 줄줄이 폐기되고 《박정희함수》, 《박정희신화》가 여지없이 무너지고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곳 주민들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찍은것이 정말 후회된다.》고 하면서 《다음번 〈국회〉의원선거때에는 완전히 궤멸시키겠다.》고 벼르고있다. 그들속에서는 《〈자유한국당〉때문에 경상도가 망한다.》, 《〈자유한국당〉은 정화와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결에만 매달리고있는 적폐세력이다.》, 《대구시민의 망령이다.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하라.》 등의 분노의 웨침이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지역 민심은 여론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들에 의하면 지난 시기 이 지역에서 60%이상에 달하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률은 현재 10%대로 대폭 떨어졌다. 남조선언론들과 정론가들은 지역정당이 자기 터밭에서 버림받는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면서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 속에 《보수의 중심이였던 대구, 경상북도가 번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지탱점이 밑뿌리채 흔들리고있다.》, 《수십년동안 유지되여온 보수의 터밭이 붕괴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상북도를 다시 쟁취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오래전부터 보수경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왔던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이 보수패당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부터 극도의 환멸과 분노로 바뀌여지고 현부통일기운이 고조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 반보수기운이 높아가고있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이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것이다.

이곳 주민들이 선거때마다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주군 한것은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수 있다는 미련을 끊었기때문이였다. 이를 악용하여 박근혜역도는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당시 경상도지역을 《산업화의 심장》으로 추어올리면서 주요핵심공약 100여개중 50%이상을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배당하여 숱한 지지표를 긁어모았었다.

하지만 집권후 제일으로 내뗄은 그 많은 공약들을 자금사정을 비롯한 각종 구실들을 내대며 다 줴버렸다. 더우기 역도가 벌려놓은 《구조조정》놀음으로 대구, 경상북도지역이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숱한 공무원과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였다. 이것은 보수패당에 대한 이 지역 인민들의 분노심을 치솟게 하였다.

박근혜역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싸드》배치소동이 벌어져 이 지역의 안전이 위태로와진것도 보수패당에 대한 민심의 격분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박근혜가 《싸드》배치부지를 경상도지역으로 정하자 이곳 주민들은 《박근혜가 이럴줄 몰랐다.》,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들고일어났다. 최종적으로 《싸드》배치지로 선정된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벌어진 반《정부》투쟁은 린접의 김천시와 대구시는 물론 20여개 지역으로 퍼져나가 박근혜패당을 진퇴양난하였다. 결국 대구, 경상북도지역은 박근혜《정권》반대투쟁의 진원지로 되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실체험을 통해 보수패당의 집권하에서는 과국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릴수 없고 자신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수 없다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유한국당》반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지금 대구, 경상북도의 주민들은 지역경제침체로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고 악화된 민생경제지표들을 개선하자면 북남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들은 지난 2003년의 대구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당시 우리 선수단, 응원단파 흥분과 기쁨에 겨워 서로 얼싸안고 뜨거운 정을 나누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감추지 않고있다. 그때 대구시민들은 지나가 집을 치고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였으며 경기장밖에까지 따라나와 바래주군 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대구는 원래 보수적인 지역인데 이번에 북측 응원단이 오는 바람에 시민들이 정말 많이 변했다. 대구시민들의 통일열망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평하였었다.

지금 대구, 경상북도의 주민들은 그때의 감동을 되살리며 북남관계개선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 특히 이 지역의 기업가, 경제전문가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북과의 경제협력에 있다.》고 하면서 북남경제협력토론회를 활발히 벌리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은 변하고있다.

반인민적악정과 반공화국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므로써 자신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들씌운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결코 용납할수 없고 그 공범자무리인 《자유한국당》패거리들도 그대로 놔둘수 없다는것이 분노한 이 지역 민심의 절규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간상배들이 제아무리 《혁신》과 《쇄신》을 해쳐대도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 반역무리들에게는 결코 앞날이 있을수 없다.

본사기자 허 영 민

허울뿐인 《비상대책》기구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월에 있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심의 버림을 받고 대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그 무슨 《쇄신》이니, 《혁신》이니 하며 민심을 엽어넘기고 파멸의 함정에서 헤여나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이런 속에 반역당패거리들은 《당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겠다고 떠들어대며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을 정식 내왔다. 선거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지도부 전원이 사퇴한 이후 40여 일만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의 감투를 쓴 전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김병준파 그의 추종인물들, 박근혜탄핵바람에 합류하여 당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기여들어온 복당파 그리고 친박계와 비박계 등 여증이패중이 들로 구성되였다고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것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을 주도한다고 광고하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작된 후 첫 회의를 연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책임파 혁신》으로 《보수의 정체성을 정리》하였다느니, 현장에서 매맞으며 《민중의 말을 듣겠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민심과 여론의 지지를 얻어보려고 실로 역스럽게 놀아댔다. 얼마전에는 《비상대책위원회》산하에 소위 원회들을 내온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웠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축으로 하여 어수선한 당내분위기를 수습하고 《쇄신》파 《혁신》의 간판밑에 반역당의 더러운 몰골을 분칠을 하려들지만 그것은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산송장들의 진땀무지를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다.

력대로 남조선보수패당은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심지어는 전과자들이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김병준으로 말하면 로무현《정권》시기 청와대 정책실장노릇을 하였으며 그후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였다가 당시 《한나라당》의 공세에 못이겨 끝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야욕에 사로잡힌 이자는 자존심도 팽개버리고 정치적신조도 없이 자기를 파멸시킨자들과 시종일관 대책위원회》의 수장자리를 타고앉아있으니 이 얼마나 카소로운노릇인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김용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자는 박근혜역도의 《국정》롱락사건이 터졌을 때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제법 목소리를 높이면서 탈당극을 연출하였다. 당시 이자는 박근혜와 그 일당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데 앞장설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지어 김용태는 《새누리당》의 해체까지 주장했었다. 그러던자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싶게 입을 싹 씻고 역적당에 발을 들여놓았다.

오물통에 쉬파리떼가 쌀어들듯이 악의 본거지이며 무정부패의 본산인 《자유한국당》에는 별의별 인간쓰레기들이 다 몰려들고있다. 이런 추악한 정치간상배, 부정부패경력자들이 한데 모여 뭉그러낸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과 변화를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자유한국당》것들이 조작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은 희극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오물당, 쓰레기당에 있어서 비상대책이란 하루라도 빨리 무덤속에 들어가는것뿐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남조선신문 집단랍치사건의 진상조사는 적폐청산의 주요항목이라고 주장

2일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가 《정보원이 왜 집단랍북사진조사 안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한 집단랍치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것을 요구하였다.

신문은 북녀성종업원들에 대한 집단랍치사건은 현 《정권》이 들어선 초기에 조사되였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유리한 선거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북녀성종업원들의 《집단랍북》을 계획적으로 조작하였다는것이 드러났다고 신문은 밝혔다.

때문에 집단랍치사건은 적폐청산의 주요항목에 해당된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단랍치사건을 적폐청산항목에서 뺐다는것은 국민에게 납득될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립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마쯔시로에 서린 원한

자라 일제는 이미 일본 각지에서 《징용》으로 끌려와 일하고있던 조선사람들을 끌라내여 이 공사판으로 끌어갔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마쯔시로의 지하대본영공사장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의 수가 하루평균 7천명이상이였으며 때로는 1만명을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일제가 전쟁의 운명, 《제국》의 운명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비밀공사에 자기 나라 로동자들도 아닌 식민지조선의 인력을 동원하기로 하였겠는가. 단순히 임금같은 잡다한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고도 실컷 부려먹을수 있다는 타산에서만이 아니였다. 여기에는 보다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었다.

그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지하대본영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공사에 동원시켰던 전체 조선인로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함으로써 그 비밀을 덮어버릴것을 노렸던것이다. 그야말로 조선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극악한 악귀, 살인마들만이 할수 있는 타산이였다.

당초에 이런 끔찍한 통계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끌어간것만큼 일제는 그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짐승보다 더 혹사시켰다. 마쯔시로의 교역장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학대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였다.

새벽 4시에 악마의 고함소리 같은 심장놈들의 구령이 터지면 조선사람들은 썩은 밥 한줌을 먹고 공사장으로 내몰렸다. 그들은 2중3중의 통제와 감시속에서 최사슬에 묶이운채 하루 13~15시간 지어 16시간이상씩 감독놈들의 채찍에 얻어맞으면서 바위를 깨내고 무거운 돌들을 져날랐다.

일제야수들은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 자리에서 조선인로동자들을 때려죽였으며 콩크리트혼합물속에 산채로 처넣어 굳혀버리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공사장에서 도주하려던 사람들을 붙잡으면 끈으로 코를 꿰여가지고 사방으로 끌고다니다가 총살하거나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학살하였다.

공사장에서는 단 하루도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일제는 조선인로동자들의 시체를 땅에 묻는것마저 시끄러워 멀리 가져다가 깊은 산속이나 물속에 쓰레기처럼 내던져버렸다.

공사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사가 끝나자 《비밀보장》때문에 참살당하는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일본왕의 침실 공사에 내몰리였던 180여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은 단 한명도 살아남지 못하였으며 그밖에도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극비밀리에 집단학살당하였다.

지하대본영공사장은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였으며 굶주림과 노예적 학대, 죽음의 생지옥이였다. 일본은 과거에 마쯔시로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를 절대로 감출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수리아 적대세력들과의 전쟁에서 곧 승리할것이라고 강조, 반테로전과 확대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최근 수리아군장병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정부군이 7년동안 계속되여온 적대세력들과의 전쟁에서 곧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군의 심대한 타격에 반대파무장세력들이 련속 패퇴의 쓴맛을 보고있으며 이제는 스스로 강점지역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군의 투쟁에 의해 수리아령토의 약 3분의 2가 적대세력의 수중으로부터 해방되였다고 한다.

한편 수리아정부군이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전과를 확대하고있다. 최근 정부군은 로씨아항공우주군의 지원밑에 다르아도와 꾸네이트라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테로분자들과 반대파무장세력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통제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슬람교국가》테로분자들을 소탕하고 골란교원근처에 있는 언제와 소도시를 비롯하여 전략적인 대상들을 되찾았다 한다.

이 지역들에서는 국제기구들의 경로를 통해 제공된 인도주의지원물자들이 테로분자들의 수중에 들어가 정화적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과 의약품 및 먹는물부족을 겪고있었다.

지역나라들사이의 무역을 발전시킬것을 호소

싱가포르수상 리 시엔 룽이 2일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지역나라들사이의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무역분야에서 미국과 일부 나라들사이에 긴장상태가 격화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아세안의 경제적발전과 번영을 뒤받침해온 다루적 무역체계가 압박을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아세안은 자유무역과 경제적 통합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지역나라들이 포괄적인 경제적동반자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더가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호소하였다.

팔레스띠나기자들

반 이스라엘시위 진행

팔레스티나의 많은 기자들이 5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 호시에 있는 이스라엘감옥앞에서 반이스라엘시위를 벌렸다.

시위참가자들은 이스라엘감옥에 갇혀있는 20여명의 동료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웨쳤다.

그들은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저들의 살인만행과 유태인정착촌확대, 유태화책동을 폭로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지난 주에만도 6명의 기자들이 체포된데 대해 단죄하였다. 그 어떤 체포나 폭압도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을 좌절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국제공동체가 팔레스티나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